

위기의 가계부채, 서민을 위한 해법



서민 가계부채 공약 발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위기의 가계부채, 서민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열린 '비상경제대책단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말엔 韓美 기준금리차 -0.15%p”

현대경제연, 美 올해 1.40%까지 3차례 금리인상 전망... 韓 금리 1.25% 동결시 '금리역전'

올해 연말이 되면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는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발표한 '2017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슈' 보고서 통해 "올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하면 연말 한국과 미국 간 금리차는 -0.15%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은 꾸준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1.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4분기 기준 1.8%로 연중 상승률이 확

대되고 있다. 신규취업자수는 월 15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고용시장 개선세도 뚜렷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배경 하에 미국이 올해 1.40%까지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본격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통화정책 딜레마'에 빠졌다.

국내 기준금리의 방향성은 외국인 자금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인상'과 국내 저성장 및 가계부채 상환 부담 등을 타개하기 위한 '인하'로 나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 인 자금 유출을 막으려면 우리나라도 함께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130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와 국민들의 빚 상환 압박 등을 고려하면 저금리 정책 기조를 쉽사리 바꿀 수 없다.

결국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하고 한국이 금리 동결(1.25%)을 이어갈 경우 연말 한국과 미국간 금리차는 -0.15%포인트가 될 것이라 현대경제연구원의 판단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연구위원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투자

유출 논란이 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주요국 통화와 대상으로 하는 통화스왑도 체결하는 등 양호한 외환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보수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준금리 인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정책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내 경기 상황, 가계 부채의 증가세 및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등을 고려해 완만한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삼성전자, 올해 말부터 2세대 10나노 반도체 양산

삼성전자가 올해 말부터 2세대인 10나노(nm) LPP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16일 글로벌 뉴스룸 홈페이지를 통해 "1세대 10나노 공정에 이어 2세대(LPP)와 3세대(LPU)는 각각 올해 연말과 내년에 본격 양산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나노 공정은 기존 14나노 대비 성능이 27% 개선됐고, 소비전력은 40% 절감됐다. 웨이퍼당 칩 생산량은 약 30% 향상된 공정 기술이다. 기존 장비를 활용해 패터닝 과정을 3번 반복하는 트리플패터닝 기술을 적용, 미세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설계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뉴스

수입차 시장, 가솔린 '질주' vs 디젤 '후진'

하이브리드도 '약진' ... 배출가스조작 여파

수입차 시장에서 가솔린차량이 디젤차를 거의 따라잡고 하이브리드차는 점유율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2월 수입차 시장에서 디젤차는 1만1516대가 팔려 전년 대비 21% 급감했다. 반면 가솔린차는 같은 기간 판매량이 1만4746대로 전년 대비 68% 급증했다.

이에 따라 디젤차와 가솔린차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각각 48%, 45%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에는 디젤차가 68%, 가솔린차는 28%의 점유율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지만, 올해는 3%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수입차 시장에서 디젤차의 점유율은 지난 2012년 절반을 넘으며 처음 가솔린차(44%)를 뛰어넘은 이후 지속 상승해 2015년에는 70%에 육박했다. 이에 가솔린차와의 격차도 20~30%포인트나 벌어졌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디젤차 판매가 급감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배출가스 조작사태로 '클린 디젤'의 신화가 깨지면서 디젤차 판매가 하락세로 돌아섰고, 디젤차로 고공성장한 아우디·폭스바겐의 주요 모델도 인

증서류 조작으로 판매 중지됐다.

이 틈을 타 하이브리드차도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올해 수입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2939대를 기록해 123.6%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도 두 자릿수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점유율 4%에서 올해는 9%로 두배 상승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디젤 열풍이 식으면서 하이브리드차가 고연비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디젤차의 경제성이 높은 만큼 폭스바겐과 아우디 판매 재개시 수요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뉴스

'2018 쏘울 EV' 사전계약 시작

항속거리 20% 증가... 제주서 2280만원에 구입 가능

기아자동차는 16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의 개막에 맞춰 '2018 쏘울 EV'의 사전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8 쏘울 EV는 최고출력 81.4kW, 최대토크 285Nm의 고성능 모터와 30kWh의 고전압 배터리를 장착한 기아차의 대표 전기차다.

특히 기존 모델보다 배터리 용량이 3kWh 늘어난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해 항속거리가 20%가량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4280만원이다. 공모를 통해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1680만~2880만원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주에서 구입시 국고 보조금 140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 600만원을 지원받아 2280만원에 살 수 있다.

기아차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4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 참여해 ▲쏘울 EV ▲쏘울 EV 자율주행차 ▲쏘울 EV 절개차량 등을 전시한다.

또 행사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쏘울 EV의 시승 기회와 구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아차 관계자는 "2018 쏘울 EV는 대폭 향상된 항속거리와 RV 차량 특유의 넓은 실내 공간을 바탕으로 높은 상품 경쟁력을 갖췄다"며 "2018 쏘울 EV는 경제성과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하는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친환경차 시장에서 기아차의 입지를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회사채 순발행 전환... 양극화 확대

채권시장안정화 펀드 준비

감소추세를 보이던 회사채 발행이 올해부터 증가해 순발행으로 전환됐다.

우량등급과 A등급의 거래량이 늘고 있지만 BBB+ 이하의 비우량등급 발행여건은 더 악화되면서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시장안정화 펀드 가동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회사채 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 감소추세를 보이던 회사채 발행이 올해 AA- 이상 우량등급과 A등급 발행량의 증가와 함께 순발행으로 돌아섰다.

2015년 회사채 시장은 발행보다 상환이 5000억원, 지난해는 5조1000억원 각각 더 많았다. 반면 올해는 발행이 8조8000억원, 상환 6조9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의 순발행이 이뤄졌다.

앞선 두 해의 1~2월 순발행은 각각 -1조6000억원, -1조1000억원에 그쳤다. 반면 BBB+ 이하 등급의 2016년 1~2월 순상환 규모는 -3200억원에서 올해 1~2월 -4300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전년 대비 수요예측 관련 지표가 부진한 상태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장금리 급등 등 우량등급을 포함한 회사채 시장 전반에 수급불안 등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즉시 가동할 방침이다.

또 A등급과 BB등급 사이의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발행 회생채 지원을 위해 6000억원의 회사채 인수지원프로그램 가동과 함께 1조6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통한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도 지원할 방침이다.

도구상 금융위 정책국장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국제금리와 회사채 금리가 상승했지만 국제와 회사채 간 신용스프레드는 소폭 상승에 그쳤다"며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